



길을 여는 민주노총

“무대 오른편에 계신 시민 여러분, 잠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물러나 주십시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동지들 보기에 무대 왼편을 이용해서 도로를 열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를 위한 첫 번째 표결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국회로, 국회로 몰려들고 있었다. 경찰은 텅 빈 국회 앞 대로를 열어주지 않았다. 좁은 인도까지 뺄뺄하게 들어선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때,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말에 움직인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내란 세력 완전 청산 투쟁에 앞장섰다. 투쟁의 고비마다 막힌 길을 뚫는, 그야말로 선봉대 역할을 하였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관저를 진지 삼아 체포 영장에 불응할 때, 초유의 사법 내란인 윤석열

의 구속취소와 석방이 있었을 때, 뚜렷한 설명 없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인용이 늦어질 때..., 민주노총은 행동에 나섰다.

국회 앞 도로를 열었던 민주노총은 광장을, 윤석열 파면의 길을 열었다. 이런 민주노총을 시민은 ‘길을 여는 민주노총’이라고 불렀다.

회복하는 민주주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을 뿐이다.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도발은 끝나지 않았다.

자연인이 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파면 뒤 일주일씩이나 세금으로 관저 정치를 벌였다.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갈 때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며 정신 승리를 선보이더니, 4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구질구질한 변명의 끝판을 전했다.



▲현재 선고일 전날, 4월 3일 열린 광장 임시대 의원대회. 대의원들은 이날 끝장 투쟁을 결의했다.

언제든지 내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한덕수는 윤석열의 사람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알박기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계엄 뒤 안가 모임에 간 이완규,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총압파),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민정수석·전 법무부 차관)은 모임 뒤 핸드폰을 몰갈이하고 윤석열을 지키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정당을 해산하고도 남을 만큼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중이다. 쌍권 권영세·권성동, 김나운(김기현·나경원·윤상현)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한남동과 구치소,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을 옹호했다.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를 탄생시키고도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에 스무 명이 난립하는 등 부끄러움과 반성은 단 일도 찾을 수 없다.

내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판사 지귀연은 날(日)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71년 만에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 총장은 기다린 듯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했다.

국회에서 정부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유튜브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넘쳐난다. 내란 주불 윤석열을 제대로 단죄하고 잔불들은 요소요소에서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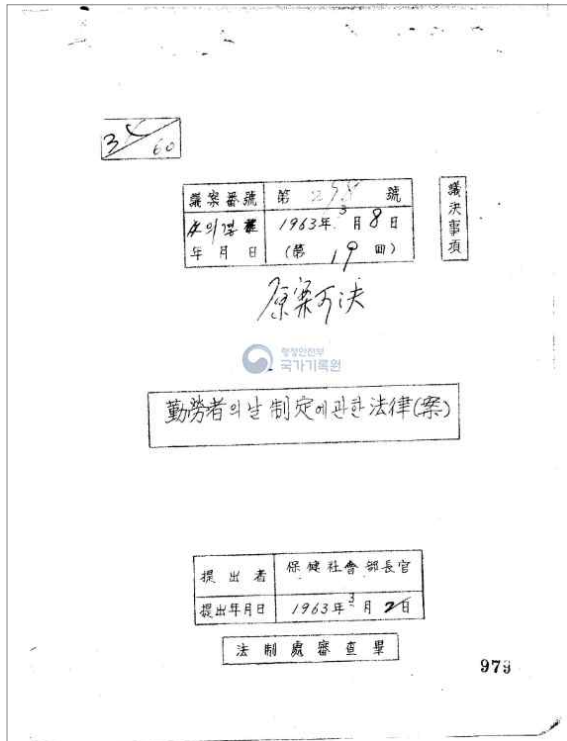
더 투쟁하라 더 조직하라

139년 전인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선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은 공장의 기계를 굴뚝의 연기를 멈췄다. 하지만 파업 투쟁 중이던 6명의 노동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하고, 자본가들이 조작한 헤이마켓 광장 폭탄 사건 탓에 당시 노동운동 지도자 4명이 사형된다. 1886년 자본가들 음모에 피로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며 기리며, 1890년부터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절) 투쟁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노동절은 일제 식민지 때였다. 노동자 자주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1923년 5월 1일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 강연회, 시위 등에 나섰다. 노동절 투쟁은 일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해방 전까지 전개되었다. 해방 뒤인 1946년에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도로 20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식을 크게 열기도 했다.

역사와 정치의 노동자의 노동절을 그냥 두지 않았다. 이승만의 충견이었던 대한노총의 창립일(3월 10일)이 노동절로 변경(1958년)되었고, 박정희 때는 이름마저 ‘근로자의날’로 바뀌는(1963년) 치욕을 겪는다.



▲1963년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 노동절을 ‘근로자의날’로 이름을 바꾼 법률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확산과 성장 속에 1989년 드디어 이름을 되찾는다. 100번째 메이데이를 앞두고 ‘노동절 전통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친미 우익 정권, 군부 독재정권이 정의한 모든 것을 떨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로 찾아왔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조 진영 총단결체로 결성한 민주노총은 시대와 역사가 필요로 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요구되는 투쟁을 외면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식민지 시대 반일·민족해방투쟁, 이승만 시절 어용노조 타파 투쟁,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거쳐 민주노조 건설 투쟁,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및 주5일제 쟁취 투쟁,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대전환 투쟁의 역사를 써왔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이다. 민주노총은 지금껏 그래왔듯 해야 할 투쟁을 할 것이다.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

자. 광장 시민과 함께 사회대개혁, 개헌을 실현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자.

반 노동정책 폐지, 우리 힘으로

1995년 창립 때부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투쟁에 전심전력을 다해 왔다.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 청산, 반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기본권 완전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2025년 노동절을 맞이한다.

5월 1일은 광장에서 만난 시민과 함께 △내란 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과제를 개헌과 개혁 입법으로 실현해가는 시작점이다. 6월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선 노동절에 민주노총 요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청산과 한국 사회 대개혁 실현,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3대 영역 16개 과제의 대선 핵심 요구안을 마련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 3대 영역에 정책별 과제를 정리했다.

우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①5인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②노조법 2·3조 개정, 헌법 노동3권 실질화 ③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④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근기법과 사회보험 전면 적용 ⑤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 ⑥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산재법 전면 적용을 내걸었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①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및 누진적 보편증세 ②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③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④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 돌봄 체계 마련 ⑤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를 추진한다.



마지막 과제인 사회대개혁을 향해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②기후 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공공 재생에너지 신속 전환 ③자주외교 실현,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④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⑥재벌·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경제민주화를 요구할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의제화 투쟁도 시기, 시기별 전개한다.

우리는 윤석열의 탄압으로 산화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한다. 화물연대의 안전 운임 확대 요구에 대화 대신 몽둥이를 든 윤석열을 잊을 수 없다. 정권을 비판한 언론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한 윤석열. 그리고 그를 만난 재벌과 대기업은 물 만난 고기처럼 노동자를 탄압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요구했을 뿐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세종호텔지부장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가 아직 고공에 있다.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확대로 노동자가 더 이상 고공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자. 특수고용·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이주 노동자도 노동3권을 누리게 하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로 만연한 노동시장 불평등을 없애고 노동시장을 근본부터 개혁하는 투쟁에 민주노총 역량을 집중하자.

내란 세력 청산·노동기본권 쟁취·사회대개혁 실현!!

작년 12월부터 우리는 명확하게 보았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더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수많은 내란 동조 세력, 극우를... 불안한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이 바로 노동자와 시민이었음을!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청산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사회·정치적 영향력과 더불어 시민과의 결합력도 높아졌다.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과의 빛의 혁명은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중단 없는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평등으로 갈 수 있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정의로운 전환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보편 복지가 뿌리 내리도록 재벌·기득권 중심의 경제를 타파하자. 2025년 광장의 민심을 받아 안아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자. 더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담은 헌법 조항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진정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개헌을 이루자. 개헌과 개혁 입법으로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제도화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자.

우리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쟁취하자. 노동자, 시민 연대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투쟁! 